



yt1948@hanmail.net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의 김용택 공동대표를 만나다

이번 도서관문화 4월호에서는 지난 3월 27일 창립대회를 가진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김용택 시인을 만나보았다. ■ 편집자 주

Q 우선 이렇게 도서관문화 지면을 통해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7일에 창립대회를 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에 공동대표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생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일은 늘 남의 일 같지는 않더라도 나오는 좀, 아니 내가 나서서 무슨 일을 하기에는 난감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 운동은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학교 도서관 문제나 도서관 문제에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들구요.

Q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각오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A 글썽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은 내가 이 운동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차차 이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며 학교와 사회에 꼭 맞는 도서관 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임실 덕치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 계신 교사로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왜 학교도서관이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전무하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시골 초등학교는 좀 낮은 편이지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어디 책을 읽은 시간이나 있습니까. 책 읽는 것이 공부라는 생각을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 등 인류정신을 배워 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독서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독서를 하더라도 그것이 시험공부의 일환이 되어 있지요. 사실은 도서관 운동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책을 읽지 않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는 겁이 납니다. 다음으로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큰 문제입니다. 책꽂이를 차지하고 있는 도서들은 대부분 신용할 수 없는 책들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아주 묵어버린 책들이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더러 많은 예산을 들여 도서실을 만드는데, 그러나 화려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도서실이나 도서관의 책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내용을 꼭 채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는! 책,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책들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Q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는지요? 만약 도서관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학교는 작은 도서실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이용하지를 않고 있지요. 그러나 다른 학교에 비해 책 읽는 시간은 많은 편입니다. 2학년인 우리 반은 아침 시간에 꼭 독서를 합니다. 오후에 남아서도 책을 읽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책 읽는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학원 가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독서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 길러주어야 됩니다.

Q '선생님 시인' 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요. 선생님께서 쓰신 좋은 작품들 감명 깊게 잘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은 어린이들이 소재가 되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책을 집필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또한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저는 아이들의 글 모음집을 자주 내는 편입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책을 낼 때 저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들을 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해주는 책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자연다큐 같은 어린이 책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요. 저는 그런 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아동을 상대로 책을 만들 때도

interview

interview

김용택(*)

지금 날씨가 참 좋네요.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봄날의 꿈은 자연이 살아 있다는 인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저 범범의 약속을 우리 꽃이 피는 봄이라 합니다.
 화려하고도, 광명한 저 자연의 관행 앞에 우리들은 감동하지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런 우리나라 등은 봄에 새로운 희망을 하는 '학교도서관운동네트워크'가
 자랑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멀리 있어 접촉은 잘 수 없으나, 그 뜻이 우리 사회
 속에 큰 바람이 되어 날려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꽃 소식에 복상합니다.
 세상을 널리 관하게 꽃피우는 책의 열매가 저 봄날의 꿈 소식처럼 세상을 관하게 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꽃 같이 밝힌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심진광에서 김용택도움
03.05.24(12:15)

<http://www.hakdo.net>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출범에 대해 홈페이지에 남긴 김용택 시인의 축하 인사말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책을 선정하는 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도서관 운동에서도 그 점이 강조 될 것입니다. 다양한 책들, 믿을 수 있는 필진과 출판사의 책들이 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동 출판 시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 도서관 운동 중의 또 하나는 각 출판사들이 우량도서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좋은 출판사 책들을 도서관에 적극 권장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네요.

Q 학교도서관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 등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우리의 도서관 운동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도서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돌아다니는 곳을 생각하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각 지역에 많은 도서관이 생기고, 많은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도 미흡한 것은 국가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력을 키워 가는 차원에서 범국민적 관심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거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Q 바쁘신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